

성별에 따른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최 현 주

울산대학교

신 혜 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녀 대학생 574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동기의 하위 요인 중 진로정체감과 진로통찰력이, 여학생 집단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서는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 진로스트레스가, 여학생 집단에서는 취업압력 스트레스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는 하위유형별로 상이한 양상이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통찰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취업압력과 내부갈등 진로스트레스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외부갈등 진로스트레스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는 외부갈등과 내부갈등 진로스트레스가 각각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대학생에게서 진로동기 및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유형별로 조절효과가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로, 대학생의 진로동기,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상담을 실행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 성차

[†] 교신저자 : 신혜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232
Tel : 02-970-6280 E-mail : hjshin@snut.ac.kr

서론

진로준비는 대학생의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김명옥, 박영숙, 2012). 대학생 시기는 진로를 선택할 뿐 아니라, 선택한 진로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활동이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장이슬, 송병국, 2015; Super, 1953). 진로준비행동이란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결정된 사항을 성취하고자 실천하는 구체적인 활동들을 가리킨다(김봉환, 1997;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 2007). 진로준비행동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정보수집 활동이다. 합리적인 진로 결정을 위해서는 흥미, 적성, 가치 등 자신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해당 진로의 전망, 취업방법, 근로환경 등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둘째,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이다. 해당 진로 및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료 및 교재를 마련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수립한 진로목표를 성취하고자 마련한 도구를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준비를 실천하는 것이다(김봉환, 김계현, 1995).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을 평가하게 되면, 인지나 태도 차원에서만 진로준비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 측면에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으로써, 진로상담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강희순, 2010; 김민정, 양현정, 2015; 김봉환, 1997). 진로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해도 준비행동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로목표를 이루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김명옥, 박영숙, 2012).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경우,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난 등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이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김명옥, 박영숙, 2012; 신혜진, 2016). 이러한 시점에서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진로동기는 진로 준비과정에서 행동을 유발, 촉진시키는 심리적 원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변인이다(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 2016; 김보경, 정철영, 2012; Werner & DeSimone, 2011). 진로준비는 갑자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진로결정 및 탐색행동을 발생, 유지시킬 수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서 진로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강명희 외, 2016). 진로동기란 인간 행동의 심리적 동력인 동기의 개념을 진로에 적용시킨 것으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로에 몰입하고 개발을 지속하려는 내적인 힘을 가리킨다(김보경, 정철영, 2012; Noe, Noe, & Bachhuber, 1990). 진로동기는 동기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진로 정체감,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진로통찰력, 동기를 유지시키는 진로탄력성의 세 가지 핵심 영역으로 구성된다(London, 1983; Noe, Noe & Bachhuber, 1990).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어느 정도로 자신의 일에 따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지를 의미한다. 그리고 진로통찰력은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스스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직업 목표의 수립 정도를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진로탄력성은 부정적인 진로 상황이나 변화가 따르는 상황에 인내하며 적응하는 능력을 가리킨다(London & Mone, 1987; Noe et al., 1990).

현재까지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밝힌 경험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강명희 외, 2016; 신혜진, 2016). 그러나 진로동기 모델 이론(Career Motivation Theory)을

제시한 London(1983)에 따르면, 진로동기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로결정 및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선행연구들도 진로동기의 일부 하위 영역 변인과 진로준비행동 또는 진로준비 관련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들을 보고함으로써, London(1983)의 진로동기 모델 이론을 뒷받침해왔다. 예컨대, 양진희와 김봉환(2009)은 진로정체감이 높은 여대생일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지혜(2013)는 대학생 214명의 자료 분석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진로에 적용한 진로정체감이 자기결정성과 진로의식 성숙도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진로통찰력의 경우, 그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크며,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희, 2015). 또한, 진로통찰력은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활용, 문제해결 등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안윤정, 문윤경, 2014). 진로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진로탄력성 개념이 널리 적용되기 이전에는 주로 자아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시행되었다. 예컨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자아탄력성이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영미, 유순화, 윤경미, 2009). 김지연과 이기학(2014)도 자아가 탄력적인 대학생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수행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김봉환(2010)은 여대생의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강현희(2015)는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탄력성이 진로

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진로탄력성은 직업정보 부족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정보나 자신감 결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진로준비행동을 이행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이다(강현희, 2015). 최근에는 자연과학계열 전공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이지만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속에서 부분매개 효과를 수행함이 밝혀졌다(강명희 외, 2016).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의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음을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성별에 근거하여 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이상희, 2005; 이현주, 2001; Hardin et al., 2006),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동기 변인 모두 성차와 관련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우선, 진로준비행동 수준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연구(강희순, 2010; 손은령, 손진희, 2005; 신혜진, 2016)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난 연구(박정희, 김홍석, 2009; 서유진, 2007)가 공존하여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진로준비 수준 뿐 아니라 유형에도 성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영교(2017)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소년패널조사(Youth Panel)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학생 362명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계층 유형을 탐색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격증, 외국어 등 취업 관련 도구를 갖추면서도 인턴, 아르바이트 등 관심 진로와 관련 있는 직무 경험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쌓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남학생은

진로준비를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훨씬 높았던 반면, 여학생은 주로 독자적으로 노력하는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동기에서도 성차와 관련하여 상반된 결과가 혼재한다. 강영숙(2016)은 41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남녀 참여자 간 진로동기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반면, 안윤정과 문윤경(2014)은 599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동기와 진로관련 역량에 대해 조사했는데, 진로동기의 하위 영역 중 진로탄력성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현주(2011)는 지연(procrastinating)과 같은 자아핸디캡 전략이 고등학생의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진로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에서 남학생은 부분매개효과를, 여학생은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했는데, 이는 진로미결정에 대한 진로동기의 영향력이 여학생에게서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이현주, 2011).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남녀 학생 집단 별로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조절 변인으로 진로스트레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민정, 양현정, 2015;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특히, 지속되는 경제침체,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직업세계로의 진입이 현저하게 어려워진 근래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준비행동의 실천을 어렵게 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가중시키고 있다

(신혜진, 2016, 재인용, p.351). 스트레스란 적응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인데, 특히 진로와 관련된 선택과 준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이 부족함을 느끼고 개인의 안녕을 위협받게 되는 상태를 진로스트레스라고 한다(최보영 외, 2011; 황지영, 박재황, 2015). 그러나 스트레스가 항상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일 수 있다(최해림, 1986). 진로스트레스도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안윤정, 서지운, 2013). 즉,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경험하며 제대로 준비를 이행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동기를 촉진하여 진로 준비를 열심히 실행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혜진(2016)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토대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면서도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인 집단부터 스트레스와 준비가 모두 저조한 집단, 스트레스는 높음에 비해 준비에 소극적인 집단까지 다양한 양상이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연구들은 진로스트레스를 주로 진로발달 관련 변인의 예측요인이자 진로발달을 저해하는 역기능적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탐색해왔다(안윤정, 서지운, 2013).

기존 연구의 또 다른 한계점은 진로스트레스 수준 외에 스트레스의 하위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한 박희락(2009)은 진로스트레스를 그 발생 경로에 따라 진로모호성, 취업압력, 정보부

족, 외부갈등, 내부갈등의 다섯 가지 하위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진로모호성이 선택한 진로와 적성 간의 갈등이나 미래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라면, 취업압력은 취업 준비 과정에 수반되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연관된 스트레스이다. 정보부족은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적절히 얻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가리키며, 외부갈등은 부모를 포함한 주요 타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를, 내부갈등은 직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곤란을 나타낸다(박희락, 2009). 이상희(2012)는 박희락(2009)의 척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취업압력과 진로정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빈번함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스트레스의 하위 유형과 성별에 따라 진로스트레스의 영향력도 달라진다고 보고했는데, 취업압력과 정보부족 스트레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추후 진로스트레스 연구가 성차와 하위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이상희, 2012). 이와 관련하여 이동혁(2011)도 진로스트레스와 유사한 개념인 진로장벽이 대학생의 개인 내적변인(진로사고, 진로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으로서 효과가 없음을 발견했는데, 진로장벽 하위 유형의 구분 없이 전체 점수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을 그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고려할 때, 가족 등 주

요 타자와의 관계가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Leong & Chou, 1994)을 지적하면서 각 하위 유형 별로 조절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대하여 각각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특히, 진로스트레스의 하위 유형을 구분하여 조절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탐색해 보고자 한다. 만약 진로스트레스가 조절변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면, 진로스트레스가 높을 때와 낮을 때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가 이에 따른 차별화된 상담적 개입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어떠한 진로스트레스가 진로에 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강화 혹은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능케 함으로써 대학생 대상 진로상담의 효과성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은 각각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자대학생과 여자대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는 하위 유형 별로 조절효과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연구 자료는 서울 소재 5개 대학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되었다. 배부된 600부 가운데 성별을 알 수 없거나 결측치가 전체 응답의 30% 이상인 자료를 제외하고, 총 574명의 설문을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306명(53.4%), 여학생이 268명(46.6%)으로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 36명(6.2%), 2학년 185명(31.8%), 3학년 160명(27.4%), 4학년 193명(33%)으로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낮고 2, 3, 4학년은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학년 비율의 경우 남학생은 1학년 16명(5.2%), 2학년 94명(30.9%), 3학년 87명(28.4%), 4학년 109명(35.5%)이었고, 여학생은 1학년 20명(7.5%), 2학년 91명(34%), 3학년 73명(27.2%), 4학년 84명(31.3%)으로 각 집단의 학년별 분포는 전체 집단과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연구도구

진로준비행동 척도(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ventory)

진로준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18문항으로 구성된 이명숙(2002)의 진로준비행동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이해 및 직업 정보 탐색에 투여한 실제 노력과 행동을 묻는 김봉환(1997)의 진로준비행동검사에 두 문항을 추가하여 개발된 것이다(이명숙, 2002). 추가된 문항은 “지난 몇 개월 간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본 적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자료

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이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88이었으며(이명숙, 2002), 본 연구에서는 .87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측정도구임이 확인되었다.

진로동기 척도(Career Motivation Instrument)

진로동기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김보경(2012)의 진로동기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Noe, Noe와 Bachhuber(1990), London(1993), Day와 Allen(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고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정체감은 5문항으로 문항의 예로는 “지금 나는 미래 직업에 관한 분명한 목표를 가진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 등이 있다. 진로통찰력은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등의 6문항, 진로탄력성은 “나는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다.” 등의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된다. 원척도의 내적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3이었으며(김보경, 2012), 본 연구에서 역시 .91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로는 진로정체감이 .89, 진로통찰력이 .84, 진로탄력성이 .8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진로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진로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된 진로스트레스 척도(Career Stress Inventory: CSI, 박희락, 200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로모호성(예: “내가 미래에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몰라서 답답하다.”), 취업압력(예: “취업을 위한 시험에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보부족(예: “진로준비를 하는 데에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몰라서 막막하다.”), 외부갈등(예: “계획하고 있는 진로에 대해 나는 만족하지만 주위 사람들의 기대가 달라서 고민이다.”), 내부갈등(예: “안정적인 진로를 선택할지, 불안정하지만 도전적인 진로를 선택할지가 고민된다.”)의 5개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 별 문항 수는 5개로 동일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는 .91로 확인되었으며(박희락, 2009), 본 연구에서도 .92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진로모호성은 .91, 취업압력은 .85, 정보부족은 .89로 높은 수준을 보였고 외부갈등은 .78로 수용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내부갈등은 .67로 다소 낮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자료분석

연구 변인의 분포와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남녀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 하위 유형별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준비행동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진로동기의 하위요인, 진로스트레스의 하위요인,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각 집단별로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항은 진로동기 3개 하위요인과 진로스트레스 5개 하위요인에 대해 15개가 생성되었다. 회귀계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독립변수들을 Z점수로 표

준화하였고, 상호작용 항도 표준화된 독립변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에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우선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동기와는 정적 상관을, 진로스트레스와는 부적상관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 중 외부갈등의 경우 여학생 집단은 $r=-.04$ ($p>.05$), 남학생 집단은 $r=-.05$ ($p>.05$)로 두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지니지 않았다.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도 부적 상관을 지니는 경향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상관계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진로탄력성과 진로스트레스 간 관계에서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진로탄력성과 진로스트레스 간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으나($r=-.09$, $p>.05$), 남학생 집단에서는 진로탄력성이 높을수록 진로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부적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1$, $p<.001$). 연구 변인의 평균 역시 남녀 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여학생이 정보부족($t=-2.54$, $p<.05$) 및 내부갈등($t=-3.15$, $p<.01$)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우선, 남학생 집단에서 진로동기가 진로준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진로 준비행동	진로동기			진로스트레스					남학생 (N=306)		여학생 (N=268)		
	1	2	3	4	5	6	7	8	9	M	SD	M	SD	
1. 진로준비행동	-	.47***	.42***	.41***	-.34	-.12*	-.34***	-.04	-.11*	2.87	.76	2.88	.69	
진 로 동 기	2. 진로정체감	.51***	-	.62***	.55***	-.72***	-.32***	-.54***	-.13*	-.24***	3.26	.86	3.21	.86
	3. 진로통찰력	.50***	.67***	-	.60***	-.47***	-.29***	-.49***	-.12*	-.18**	3.36	.68	3.39	.62
	4. 진로탄력성	.42***	.64***	.68***	-	-.48***	-.42***	-.48***	-.19**	-.09	3.29	.67	3.21	.67
	5. 진로모호성	-.34***	-.70***	-.49***	-.55***	-	.44***	.80***	.27***	.42***	3.05	1.07	3.11	1.02
진 로 스 트 레 스	6. 취업압력	-.11*	-.36***	-.25***	-.37***	.54***	-	.51***	.25***	.20***	3.58	.86	3.70	.82
	7. 정보부족	-.42***	-.56***	-.46***	-.50***	.65***	.54***	-	.26***	.37***	3.11	.95	3.30	.91
	8. 외부갈등	.05	-.12*	-.13*	-.23***	.37***	.24***	.33***	-	.44***	2.27	.78	2.24	.71
	9. 내부갈등	-.12*	-.34***	-.23***	-.31***	.57***	.44***	.56***	.53***	-	2.67	.75	2.87	.77

* $p < .05$, ** $p < .01$, *** $p < .001$

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진로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1단계에서는 진로동기의 3개 하위요인과 진로스트레스의 5개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 간 상호작용 항 15개를 추가로 투입한 후 R^2 증가량(ΔR^2) 및 상호작용항들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호작용항이 추가되기 전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 변량의 총 37.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22.660, p < .001$).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의 주효과를 살펴보면, 진로동기 중에서는 진로정체성($\beta=.252, p < .05$)과 진로통찰력($\beta=.211, p < .01$)의 영향력이 유의했고, 진로탄력성($\beta=.100, p > .05$)은 그렇지 않았다. 진로스트레스의 경우,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갈등의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취업압력($\beta=.155, p < .05$)과 외부갈등($\beta=.163, p < .01$)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했고, 정보부족은 진로준

비행동의 수준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다($\beta=-.289, p < .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2단계는 1단계에 비해 3.3%의 설명변량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F=1.060, p > .05$). 그러나 진로통찰력×취업압력($\beta=.303, p < .05$), 진로통찰력×내부갈등($\beta=-.307, p < .05$)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취업압력 및 내부갈등을 각각 상(high, M+SD), 하(low, M-SD) 두 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 집단에서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회귀선으로 그려보았다(그림 1). 취업압력의 경우, 취업압력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은 진로통찰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졌으나 취업압력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높아도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갈등은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내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높아도 진로준비행

표 2. 남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β	R^2	ΔR^2	ΔF
1단계	진로동기				
	진로정체감 (X1)	.233**			
	진로통찰력 (X2)	.226**			
	진로탄력성 (X3)	.078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M1)	.006	.379		22.660***
	취업압력 (M2)	.163**			
	정보부족 (M3)	-.321***			
	외부갈등 (M4)	.152**			
	내부갈등 (M5)	.067			
2단계	진로동기				
	진로정체감 (X1)	.242*			
	진로통찰력 (X2)	.211**			
	진로탄력성 (X3)	.100			
	진로스트레스				
	진로모호성 (M1)	.002			
	취업압력 (M2)	.155*			
	정보부족 (M3)	-.298***			
	외부갈등 (M4)	.163**			
	내부갈등 (M5)	.076			
	진로동기 ×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 진로모호성 (X1 × M1)	-.043			
	진로정체감 × 취업압력 (X1 × M2)	-.154			
	진로정체감 × 정보부족 (X1 × M3)	.127	.412	.033	1.060
	진로정체감 × 외부갈등 (X1 × M4)	-.123			
	진로정체감 × 내부갈등 (X1 × M5)	.113			
	진로통찰력 × 진로모호성 (X2 × M1)	.061			
	진로통찰력 × 취업압력 (X2 × M2)	.303**			
	진로통찰력 × 정보부족 (X2 × M3)	-.104			
	진로통찰력 × 외부갈등 (X2 × M4)	.182			
	진로통찰력 × 내부갈등 (X2 × M5)	-.307*			
	진로탄력성 × 진로모호성 (X3 × M1)	.046			
진로탄력성 × 취업압력 (X3 × M2)	-.157				
진로탄력성 × 정보부족 (X3 × M3)	-.046				
진로탄력성 × 외부갈등 (X3 × M4)	-.074				
진로탄력성 × 내부갈등 (X3 × M5)	.09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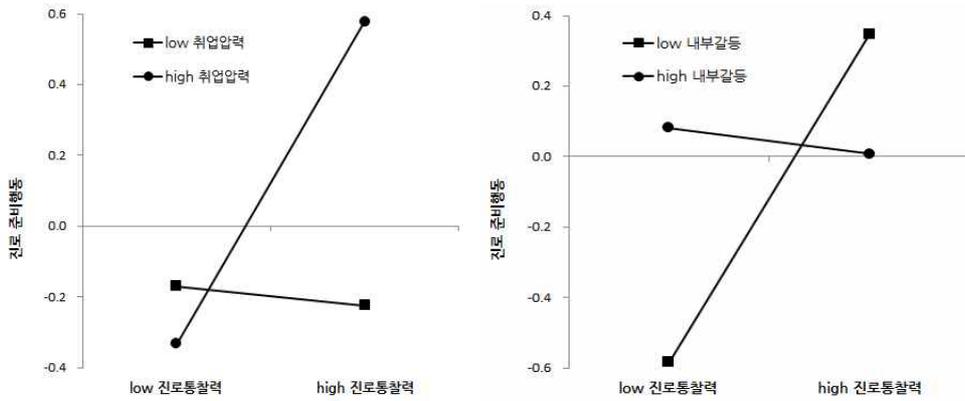


그림 1. 남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동 수준이 높아지지 않은 반면, 내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여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여학생 집단에서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3). 남학생 집단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진로동기의 3개 하위요인 및 진로스트레스의 5개 하위요인을, 2단계에서는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후 ΔR^2 및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준비행동 전체 변량의 약 27.9%를 설명하였다($F=12.546, p<.001$).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동기와 진로스트레스의 주효과의 경우, 진로동기 중에서는 진로정체성($\beta=.266, p<.01$)과 진로탄력성($\beta=.240, p<.01$)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

도 높아지나 진로통찰력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3, p>.05$). 진로스트레스 하위요인 가운데에는 취업압력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진로모호성, 정보부족, 외부갈등 등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취업압력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beta=.136, p<.05$).

2단계에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으로써 설명변량이 6.9% 증가하였다($F=1.733, p<.05$).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항으로는 진로정체감×외부갈등($\beta=-.294, p<.001$), 진로탄력성×외부갈등($\beta=.179, p<.05$), 진로탄력성×내부갈등($\beta=-.189, p<.05$)이 있었다. 그림 2에 외부갈등 및 내부갈등의 상(high, M+SD), 하(low, M-SD) 집단에서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가 회귀선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갈등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는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여학생은 진로정체감이 상승해도

표 3. 여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독립변인	β	R^2	ΔR^2	ΔF
1단계	진로동기				
	진로정체감 (X1)	.280**			
	진로통찰력 (X2)	.125			
	진로탄력성 (X3)	.199**			
	진로스트레스				
	진로보호성 (M1)	.026	.279		12.546***
	취업압력 (M2)	.121			
	정보부족 (M3)	-.110			
	외부갈등 (M4)	.048			
	내부갈등 (M5)	.015			
2단계	진로동기				
	진로정체감 (X1)	.266*			
	진로통찰력 (X2)	.073			
	진로탄력성 (X3)	.240**			
	진로스트레스				
	진로보호성 (M1)	.076			
	취업압력 (M2)	.136*			
	정보부족 (M3)	-.136			
	외부갈등 (M4)	.094			
	내부갈등 (M5)	-.044			
	진로동기 ×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 진로보호성 (X1 × M1)	.017			
	진로정체감 × 취업압력 (X1 × M2)	-.099	.349	.069	1.733*
	진로정체감 × 정보부족 (X1 × M3)	.208			
	진로정체감 × 외부갈등 (X1 × M4)	-.294***			
	진로정체감 × 내부갈등 (X1 × M5)	-.036			
	진로통찰력 × 진로보호성 (X2 × M1)	-.117			
	진로통찰력 × 취업압력 (X2 × M2)	.015			
	진로통찰력 × 정보부족 (X2 × M3)	-.055			
	진로통찰력 × 외부갈등 (X2 × M4)	-.003			
진로통찰력 × 내부갈등 (X2 × M5)	.157				
진로탄력성 × 진로보호성 (X3 × M1)	.065				
진로탄력성 × 취업압력 (X3 × M2)	.081				
진로탄력성 × 정보부족 (X3 × M3)	-.067				
진로탄력성 × 외부갈등 (X3 × M4)	.179*				
진로탄력성 × 내부갈등 (X3 × M5)	-.18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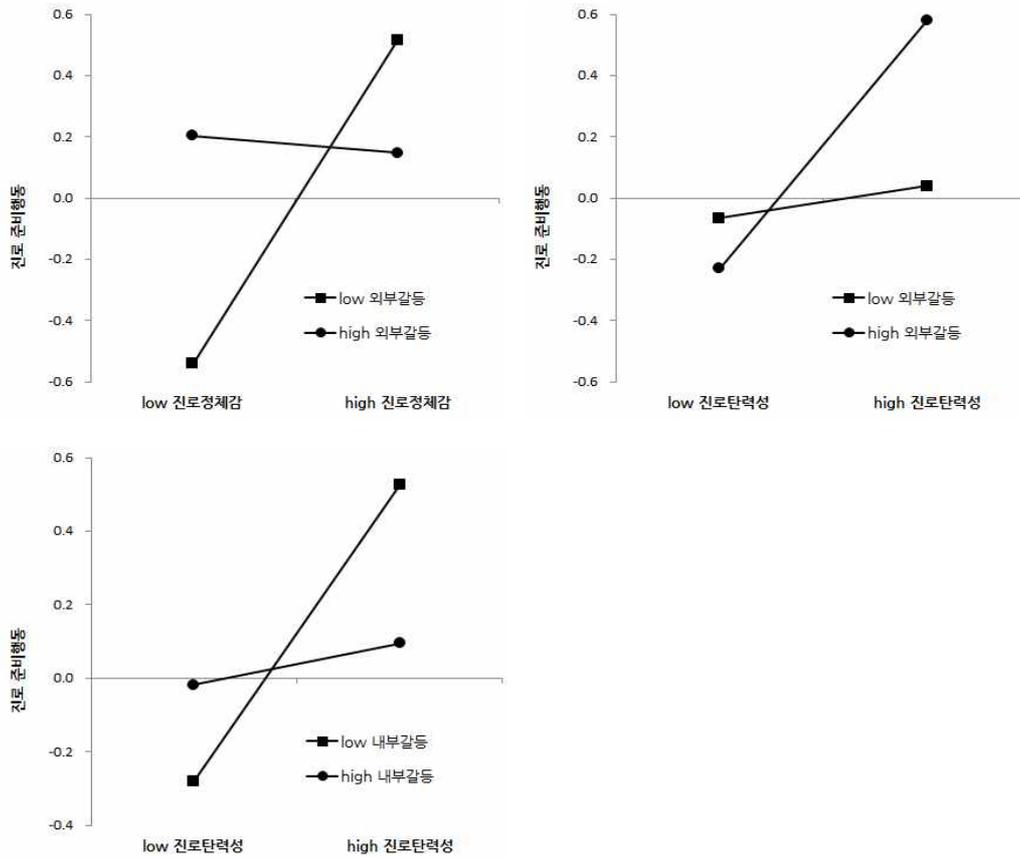


그림 2. 여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로탄력성의 경우, 외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상승함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내부갈등은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탄력성의 상승이 진로준비행동의 소폭 증가를 가져오지만, 내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이러한 상승폭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진로동기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진로동기의 각 하위 요인인 진로정체감, 진로통찰력,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 및 성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진로스트레스는 하위 유형별로 구분하여 조절효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동기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동기의 하위요인에 따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성차가 존재했다. 우선, 진로정체감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발휘했다. 이는 진로정체감을 진로준비행동 촉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한 김봉환(2010)의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또한, 진로정체감이 진로스트레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경험하면서 진로준비행동을 잘 실천하는 진로적응행동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을 구분해주는 변인임을 보고한 신혜진(2016)의 연구나 진로정체감이 부족한 대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진로결정에 대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한 신선임과 김수임(2013)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또한, 진로통찰력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진로탄력성은 여학생 집단에서만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역시,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이는 진로통찰력이 취업을 통한 사회 진출 의지를 높여주며(김진희, 2015), 자기개발, 대인관계, 정보기술활용, 문제해결 등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안운정, 문윤경, 2014)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간과한 성차가 진로통찰력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존재함을 새롭게 밝힌 결과이다. 특히, 손진희와 손은령(2005)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진로결정 수준은 낮으면서 진로준비행동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명확한 진로목표를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준비에 임하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경향이 더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남학생은 진로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결정한 후에 본격적으로 진로준비에 임하는 경향이 높았다(이제경, 2004). 따라서 진로통찰력이 자신의 특성과 직업에 대해 현실적이며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는 동력이라고 할 때(강명숙, 2016; 김진희, 2015; 이종원, 2015; London, 1983), 이러한 원동력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에 대한 방향 설정을 우선시 하는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여학생 집단에서만 진로탄력성의 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성의 진로장벽 인식과도 연계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여학생은 일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진로와 관련하여 더 많은 장벽을 인식한다(손진희, 손은령, 2005). 여기에는 다중 역할 갈등, 성차별적인 고용 현실, 남성중심의 직장 문화, 남성보다 진로설계를 수정해야 할 상황에 빈번하게 처할 가능성 등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역경들이 포함된다(김봉환, 2010; 홍지선, 계은경, 2016). 따라서 이러한 역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진로탄력성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에 더 중요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 진로스트레스의 경우, 남학생 집단에서는 취업압력, 정보부족, 외부 갈등 유형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여학생 집단에서는 취업압력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 성차가 존재했다. 그러나 진로스트레스가 준비행동을 저해한다는 일반론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학생의 정보부족 스트레스만이 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최해림, 1986), 진로스트레

스도 대학생의 진로 발달에 부정적 영향 뿐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선행연구(안윤정, 서지윤, 2013)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로스트레스 하위 유형별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역할이 상이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남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통찰력과 진로준비행동 간 관계에서 취업압력 스트레스의 정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불안감과 압박감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남학생은 진로통찰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졌으나 취업압력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높아도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되지 않았다. 이는 취업압력 스트레스가 남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여학생에게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고하며 진로스트레스의 하위 유형별 효과에 성차가 존재함을 지적한 이상희(201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이상희(2012)의 연구에서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개인이 갖는 효능감으로 정의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자기평가, 직업정보 수집, 목표선정, 계획수립, 문제해결에 대한 효능감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진로통찰력의 개념인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 형성, 스스로의 강점 및 약점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직업 목표의 수립 정도등과도 상당히 공유되는 부분이 많다. 결국 두 연구 모두 일관되게 취업압력 스트레스가 남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 수행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한편, 남학생의 진로통찰력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내

부갈등 스트레스는 부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높을 때 진로준비행동이 오히려 저하되었으나 내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는 진로통찰력이 증가할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진로발달이 성역할에 기반한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은 가장으로서 사회적 지위, 경제적 성취 등에 대한 기대를 여성보다 많이 받고 자라며 따라서 종종 진로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인식하고 선택하는 반면, 여성들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로준비과정에서 현실상황을 더 잘 반영하려고 하며, 구체적인 성취의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우영지, 이기학, 2010; 조정아, 2000). 진로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내적인 혼란을 느낀다면, 진로를 생계 유지수단으로 바라보며 성취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더 많이 인식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진로환경을 현실적으로 탐색하며 명확한 진로목표를 세우는 데 여성보다 훨씬 더 큰 방해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도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취업에 대한 불안감, 압박감 등은 진로에 대한 남학생의 성취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현실적인 진로목표를 수립하는 진로통찰력을 촉진하고 나아가, 진로준비행동 또한 증진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

셋째, 여학생의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 외부갈등의 부적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즉, 외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여학생은 진로정체감

이 상승해도 진로준비행동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행동이 많을수록 남녀 모두 진로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Dietrich & Kracke, 2009), 신뢰감 형성 및 원활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한 부모와의 지지적 관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에 더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이현주(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결과는 진로정체감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성차와도 관련이 있다. 여성의 경우, 부모 등 주요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진로와 관련한 자아상을 형성할 뿐 아니라, 진로와 가정을 양립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며 때로는 가정을 자신의 진로보다 우위에 두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남성은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주변과의 관계 보다는 자신의 유능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손보영, 윤민지, 박소현, 임제희, 2013; Gilligan, 1982; Heppner & Fu, 2011). 흥미롭게도, 여학생의 진로탄력성과 진로준비행동 관계에서는 외부 갈등과 내부 갈등 스트레스가 서로 상반된 조절효과를 보였다. 외부갈등의 경우에는 정적 조절효과가 나타나 외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진로탄력성이 상승함에 따라 진로준비행동도 급격히 증진되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에, 내부갈등은 부적 조절효과를 보여 내부갈등을 낮게 지각하는 집단에서 높게 지각하는 집단보다 진로탄력성 상승에 따른 진로준비행동의 상승폭이 훨씬 두드러졌다. 진로탄력성은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인내하고 유연하게 적응할 뿐 아니라(Noe et al., 1990), 역경을 극복하며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을 가리킨다(강현희, 2010; 유현실, 2013; London,

1997). 진로발달에 있어 주요타자의 인정과 지지가 중요한 여학생들에게 외부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에 비해 진로준비에 더 심각한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심적 여유를 유지하며 진로에 대한 준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힘이 바로 진로탄력성이므로 외부 갈등이 높은 여학생 집단에서 진로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진로준비행동을 훨씬 더 증폭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진로탄력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진로와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때에도, 자존감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으며(Dyer & McGuinness, 1996), 자신의 직장생활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적응하는 특성을 나타냈음(Abu-Tineh, 2011)을 보고했다. 반면, 내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여학생 집단에서는 진로탄력성이 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진로준비행동이 저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진로탄력성이 유연성 있는 적응력을 가리킬 때(Noe et al., 1990),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예: 자신의 진로문제로부터 정서적으로 여유와 거리를 둬), 바로 준비행동을 실천하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타자와의 갈등에는 여유와 거리를 두는 것이 진로준비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내적인 혼란이 심한 경우에는 자칫 당면한 진로 결정 과제를 회피하며 준비행동에 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대학생의 진로상담 실제에서 진로동기와 진로준비행동 문제를 다룰 때, 진로스트레스의 유형과 학생의 성별을 모두 고려한 차별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 형성과 함께

진로통찰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취업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은 진로 탐색을 촉진하는 힘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앞두고 느끼는 내적 갈등은 완화시키도록 한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진로탄력성의 역할이 중요한데, 진로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문제와 관련된 장벽을 인식하면서도, 발전의 여지가 있음을 이해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신혜진, 2016). 이를 위해서는 진로준비과정에서 작은 성공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피드백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는 개입이 실시되어야 한다(강현희, 2015; Werner & DeSimone, 2011). 특히, 여대생의 진로정체감은 주요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외부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이를 적절히 해결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부모 등 중요한 대인관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진로탄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진로와 직업에 대한 안정된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여대생의 내적 갈등이 심화된 경우에는 유연한 적응이 회피적 대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당면한 진로문제에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개입이 유용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는 서울 소재 5개 대학에서 교양 및 교직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서울 외에 전국 지역에서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에 따른 분

석을 실시하지 못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준비행동 수준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 고학년일수록 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진, 2016).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고학년과 저학년을 따로 분석하거나 시간차를 두어 종단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은 모두 자기보고식 질문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아닌 응답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진로동기,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명희, 윤성혜, 김도희, 류다현(2016). 자연과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지속의향과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간의 구조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9(2), 27-48.
- 강민철, 이아라, 신미라(2011). 진로스트레스, 회피대처방식, 자아존중감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2(5), 1663-1682.
- 강영숙(2016).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동기, 진로소명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강현희(2015). 폴리텍 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의 매개 효과. *진로교육연구*, 28(1), 59-78.
- 강희순 (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논단*, 9(3),

- 83-104.
- 김명옥, 박영숙(2012).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취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69-90.
- 김미경(2014). 전문대학생 진로탄력성 척도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민정, 양현정 (2015). 진로준비행동, 취업스트레스, 진로결정수준에 따른 진로준비유형 탐색, *한국 심리학회지: 학교*, 16(1), 95-110.
- 김보경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보경, 정철영 (2012). 대학생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셀프리더십, 개인이 인식한 문제해결력 및 진로동기의 인과적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2), 49-71.
- 김봉환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봉환 (2010). 여대생의 적응유연성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4), 93-111.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 상담과 심리치료*, 9(1), 311-333.
- 김지연, 이기학 (2014). 자아탄력성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7(3), 1-25.
- 김진희. (2015). 진로정체성, 진로통찰력과 진로탄력성이 대학생의 취업 의지에 미치는 효과. *직업과 고용서비스 연구*, 10(1), 47-56.
- 박정희, 김홍석 (2009).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과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1), 125-144.
- 박희락 (2009)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통한 진로태도성숙의 예측.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유진(2007). 진로장애와 낙관성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은령, 손진희 (2005).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 사회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신혜진(2016).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진로동기의 영향력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349-373.
- 신혜진, 김창대(2002). 스트레스 대처 전략 검사(Coping Strategy Indicator)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19-935.
- 안윤정, 서지윤 (2013). 대학생의 일희망과 진로동기가 진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55-81.
- 안윤정, 문윤경 (2014). 대학생의 진로동기와 변화인식이 역량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7(3), 135-161.
- 오영교(2017). 잠재계층 분석방법을 적용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유형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영지, 이기학(2010). 성별에 따른 진로포부와 진로미래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확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547-559.

- 유현실(2013) 진로탄력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성인 진로사람에 대한 시사점. *상담학연구*, 14(1), 423-439.
- 이동혁 (2011). 진로의사결정에서의 진로장벽의 역할: 예측변인 또는 조절변인. *상담학연구*, 12(1), 59-80.
-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국제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2005) 대학생의 진로장애와 진로의식숙의 관계-진로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의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상희 서유란(2012).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0(1), 37-53.
- 이종원(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승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이제경,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심리적 특성 및 개인배경 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지혜 (201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진로탄력성에 따른 군집유형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 39-59.
- 이현림, 김순미, 천미숙, 최숙경 (2008).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 진로스트레스, 진로발달 및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59-80.
- 이현주(2010). 부모의 진로관련행동 및 애착과 남녀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23(1), 41-59.
- 이현주(2011).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진로탐색활동의 인과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5(3), 257-280.
- 장이슬 송병국(2015).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2(7), 363-392.
- 조정아(2000). 대졸여성의 노동경험과 직업의식 신화. *노동과 페미니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보영, 김보람, 김아름, 장선희, 정선화, 이상민 (2011) 우연의 영향력에 대한 지각의 차이가 진로스트레스, 진로미결정 및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5), 1873-1891.
-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지영 박재황 (2010).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직업교육연구*, 34, 73-101.
- 홍지선, 계은경 (2016). 여성 진로장벽에 관한 연구동향과 향후과제: 진로발달단계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3), 225-250.
- Abu-Tineh A. M. (2011).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learning and career resilience among faculty members at Qatar Univers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25(6), 635 - 65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Day, R., & Allen, T. D.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self-efficacy with protégé career succes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4, 72-91
- Dietrich, J., & Kracke, B. (2009). Career-specific parental behaviors in adolescents'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2), 109-119.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rdon, K. A.(1995). The self-concept and motivational patterns of resilient Afric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Black Psychology*, 21, 239-255.
- Guay, F., Ratelle, C. F., Senécal, C., Larose, S., & Deschênes, A. (2006). Distinguishing developmental from chronic career indecision: Self-efficacy, autonomy,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4(2), 235-251.
- Hardin, E. E., Varghese, F. V., Tran, U. V., & Carlson, A. Z. (2006). Anxiety and career exploration: gender differences in the role of self-construa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9, 346-358.
- Hayes, A. F. (2013). PROCESS SPSS Macro [Computer software and manual].
- Heppner, M. J., & Fu, C. C. (2011). The gendered context of vocational self-construction. In P. J. Hartung, & L. M. Subich (Eds.), *Developing self in work and career: Concepts, cases, and contexts* (pp. 177-19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eong, F. T., & Chou, E. L. (1994). The role of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the vocational behavior of Asian American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4, 155-172
- London, M. (1983). Toward a theory of career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8, 620-630.
- London, M. (1993).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empowerment and support for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66, 55-69.
- London, M. (1997). Overcoming career barriers: A model of cognitive and emotional processes for realistic appraisal and constructive coping.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4, 25-38.
- London, M., & Mone, E. M. (1987). *Career management and survival in the workplac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Lopes, T. (2006). *Differences in dimensions of career motivation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graduate students by age and gender*.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Noe, R. A., Noe, A. W., & Bachhuber, J. A. (1990). An investigation of the correlates of career motiv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7(3), 340-356.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logy*, 5, 503-515.

Werner, J. M., & DeSimone, R. L. (2011). *Human resource development*. Cengage Learning.

1차원고접수 : 2017. 07. 26.

심사통과접수 : 2017. 09. 14.

최종원고접수 : 2017. 09. 2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on Effects of Career Stress

Hyun-Ju Choi

Ulsan University

HaeJin Shi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ous types of career stres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motivat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Gender differences in the moderating effects are also examined betwee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574 college students (male 306, female 268). Results showed gender difference existed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various types of career stress. For male participants, employment pressure and external conflic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nsigh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For female participants, external conflict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as well as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In addition, internal conflict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resilience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Based on the present findings,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and counseling practices were discussed.

Key words : career motivati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stress, gender difference